



권현진, 'Visual Poetry', Mixed Media on Canvas, 100×100cm, 2020

with 2021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유중아트센터에서는 특별 소장품전 <With>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마련한 특별전으로, 회화부터 조각·설치·사진·영상까지 김창열·김환기·나라 요시토모·무라카미 다카 시·구사마 야요이 등 60명에 이르는 작가의 작품 90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중아트센터의 역대 소장품전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선보인다. 근·현대미술은 물론이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 나아가 최근 떠오르는 해외 주요 작가의 작품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작품을 총망라한다. 위의 이미지는 추상회화 작가 권현진의 작품 'Visual Poetry'. 자연의 모습에서 추출한 추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맥락에서 융합과 혼성에 의한 추상 이미지를 다룬다. 권현진 작가는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을 감고 잠깐 빛을 봤을 때 안구에 맺히는 가상의 환영을 시각적 이미지로 그려내는 데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시각적 무의식의 작동으로 새로운 낯선 이미지가 발현된다.